

KMA 리더십트립 (예술편)

# 통영에서 만나는 예술의 지혜

# 통영에서 만나는 예술의 지혜

문화 예술의 향취가 살아 숨쉬는 예향 통영과 천혜의 경관을 간직한 거제에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미술, 시, 소설의 깊은 향기를 맡으며, 잠재되어 있는 리더의 창조적 감수성과 업에 대한 진정성을 깨우는 KMA 문예(文藝) 기행입니다.

## 01 교육과정의 목적 및 기대효과

### ① 자신의 業에 대한 진성성과 열정의 회복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의 흔적과 숨결을 따라가보며 [業]에 대한 몰입과 열정의 인생을 엿보고, 자신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② 창조적 시각과 감수성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조적 시선과 감수성을 통해,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색과 성찰의 기회

지역문화 체험,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고 스스로 원하는 내 모습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 02 진행방법

동시대를 함께 사는 시인과 문화 해설사가 직접 동행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예술가들과 문학작품에 대해 이야기 해 주는 여정을 통해 작가들이 작품에 매진할 당시의 상황과 생각,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봅니다. 아울러 울림을 던져주었던 그들의 생가지와 문학관, 작품 속 배경이 된 장소를 따라가보며, 그들의 체취와 그 곳에서 받은 영감을 전달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 03 드리는 말씀

“혼자 걸으면 길이고, 여럿이 걸으면 역사다.”라고 합니다. 여럿이 함께 잊고 지내던 작가의 작품과 고향을 훑어 보면 때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로 열림을 느끼곤 합니다. 그 분들의 발자취가 곧 역사이며 생의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여정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작가의 진실된 마음, 과장되지 않은 문학과 예술 이야기를 통해 길 위에서 잔잔한 감동과 삶의 위안을 얻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더불어 수려한 경관과 자연 속에 호흡하며 긴박한 일상 속에 갇혔던 마음을 정화하고, 업무에서의 동기부여를 갖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04 과정일정표

◆ 교육일정 : 2016년 9월 27일(화) 오전 8시 ~ 9월 28일(수) 오후 17시 / KMA 리무진 버스 이용

◆ 출발장소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7호선 6번 출구 앞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_ 오전 8시 출발



구분	시작	종료	소요시간	프로그램
1일차	8:00	12:30	270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7호선 6번 출구 앞)
	12:30	13:30	60분	중식 (한식당 정원_갈치조림)
	13:30	14:00	30분	전혁림 미술관 - 남다른 1%의 독창성과 위대한 열정
	14:30	16:00	90분	미륵산 정상등반 - 한산대첩의 숨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로 이동)
	16:30	17:30	60분	소설가 박경리 기념관 - 業 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진지한 성찰과 다짐
	17:30	18:30	60분	동피랑 마을 트래킹 사고의 전환 : 낙후된 철거촌을 1,000만명의 Hot Place로!
	19:00	20:30	90분	석식 (울산 다찌 _ 통영식 저녁식사)
	20:30	~		충무 마리나리조트 체크인
2일차	7:00	9:00	-	아침조식 및 리조트산책
	9:00	10:30	90분	정호승 시인 특강 - “내 인생에 힘이 되는 한마디!”
	11:00	11:40	40분	청마 문학관 기행 - 의지와 희망의 울림! ( 정호승 시인 동행해설)
	12:40	13:30	50분	중식 ( 장승포 싱싱계장)
	14:00	17:00	210분	해금강 외도 - Think Week (기상 악화시 프로그램 변경)
	17:00	21:30	270분	고속버스 터미널 도착

#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

정호승 시인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한마디’에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짧은 한두 마디의 말에도 큰 용기를 얻고 삶을 변화시킬 힘을 얻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논리적이고 거창하고 어려운 말들보다는 쉽지만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를 더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따뜻한 언어로 우리의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정호승 시인의 메시지로부터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며, 창조적 감수성을 충만이 얻어갈 수 있는 통영에서 정호승 시인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1일차: 지역전문가 및 문화해설사 동행기행
- 2일차: 정호승 시인 특강 및 청마문학과 동행기행

남과 다른 1%의 독창성

## 코발트 빛을 그리는 화가 전혁림



### 구십, 아직은 젊다 - 위대한 열정

"날이 갈수록 머릿속에서 자꾸 작품이 떠올라. 창작열이 높아지고 있어."

구십이 넘도록 잠든 시간 외에는 붓을 놓지 않았다는 '한국의 피카소' 전혁림 화백.

1916년생인 전 화백은 어렸을 적부터 타고난 그림 실력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상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쌓아 나가 한국 추상화를 개척한 원로 서양화가다.

남들이 개척하지 못한 부분을 실험정신으로 이루어낸 신지식인 시대의 선구자 전혁림 화백. 한 인생이 목표를 향하여 쏟은 열정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예술적 영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출해 새로운 화풍을 연 전혁림 화백의 미술작품들을 감상하며 그의 열정을 느껴본다.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보고, 새롭게 보기 위해 늘 고민했던 그의 자세는 불황을 타파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리더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통찰력의 정의일 것이다.

### 전혁림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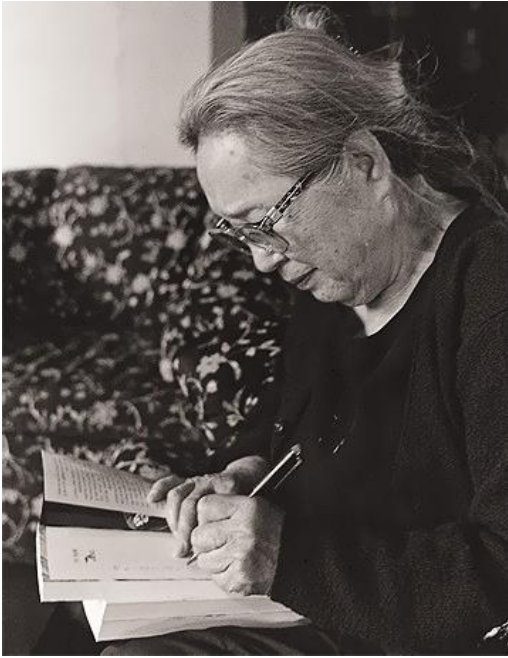
#### “색채의 마술사, 바다의 화가” 전혁림 화백

2003년 개관한 전혁림 미술관은 작품 80점과 50여점을 상설전시하고 있으며 3개월 단위로 교체 전시하고 있다. 통영의 색과 가장 닮은 전혁림의 작품, 미술관 외관부터 색색의 타일로 꾸며져 있어 마치 작품을 보는 듯 멋스럽다. 자신의 고향 통영 앞바다를 화폭에 담았던 작가는 아흔이 넘어서도 붓을 놓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가장 한국적인 감성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은 그의 작품 세계는 통영의 감성을 그대로 전해준다.



현대 한국 문학의 어머니

## 휴과 생명의 작가 박경리



### ‘불합리한’ 배경에서 자란 고독과 문학을 향한 열정

반세기가 넘는 동안 <토지> <김약국의 딸들> <파시> 등을 발표하며 한국 소설사에 큰 획을 그었다. 1969년부터 94년까지 26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토지>는 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이가 거의 없는 명작이다. 하지만 박경리 선생은 “나는 슬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문학을 했으며, 훌륭한 작가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싶다”고 털어놓는다.

이렇듯, 박경리 선생은 소설 <토지>로 유명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고달픔과 아픈 내면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견뎌왔고,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 작가로서의 고독과 열정을 작품 속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알지 못한다. 혹자는 그녀가 작가로서의 진정성과 업에 대한 정직성을 끝까지 지킨 문학자의 자세가 없었다면 토지 같은 대작은 나올 수 없었다고 말한다.

평생 지켜온 그녀의 열정과 신념, 문학자로서의 진정성은 우리가 지금 일을 해 나가면서 잃은 것이 무엇이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찰과 다짐의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다.

### 박경리 기념관

#### 박경리의 삶, 그리고 문학과 아름다운 조우

박경리 기념관은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여 4대에 걸친 인물들을 통해 민중의 삶과 한을 새로이 부각시킴으로써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작가 박경리를 기념하는 곳이다. 박경리 선생의 고향으로 문학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한 고향 통영을 소개함으로써 선생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건립한 기념관이다. 전시실과 영상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념관이 있는 박경리 공원에는 박경리 선생 묘소와 육각정 등이 있어 자연과 함께 공원을 둘러보기에 좋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다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동적인 것은 불행의 속성이요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 의지와 생명의 시인 청마(靑馬) 유치환

### 〈깃발〉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꺾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부조리한 패덕의 시대, 의지와 희망을 외치다.

청마 유치환 선생은 애뜻한 서정의 세계에서 웅장한 의지의 세계에 이르는 자신의 시를 통해 한국시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 보였다. 부조리한 패덕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평생 고뇌하였고, 시를 통해 그 의지와 소망을 표출하였다.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한계와 미흡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청마의 삶과 시를 음미하며 우리 스스로 남아있는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과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청마문학관



### 청마의 문학이 살아 숨쉬는 공간

청마문학관은 청마의 삶을 조명하는 '청마의 생애' 편과 생명 추구의 시작을 감상하고 작품의 변천, 평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마의 작품 세계'편, 청마가 사용하던 유품들과 청마관련 평론, 서적 논문을 정리한 '청마의 발자취'편, '시 감상코너'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청마의 유품 100여점과 각종 문헌자료 35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전통에서 길어 올린 ‘창조’의 소리

## 경계를 넘어선 예술가 윤이상

(기상악화시 한려수도 케이블 대체프로그램)



### 한국인으로 클래식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사람, 윤이상

20세기 세계 5대 작곡가로 꼽혔으며, 150여 곡의 음악작품을 남겼다. 서양 현대음악의 바탕 위에 동양의 철학적 사상과 전통음악의 음향을 융합하여 인류 음악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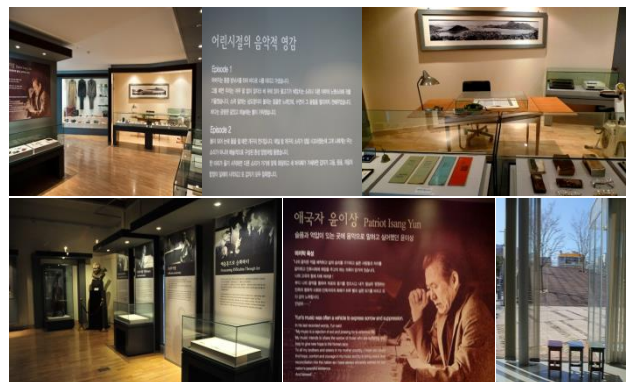
이처럼 해외에서 세계적인 작곡가로 이름을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제대로 접해본 이들은 많지 않다. 동백림 사건으로 한국은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1995년 이역만리 베를린에서 고향의 돌과 흙을 만지며 삶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명예가 복권이 되기까지는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전통문화 유산에 내재한 창조적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고 발견하며, 창작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은 그의 음악세계를 느껴보자. 그것은 늘 창조적 발상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 윤이상 기념공원

#### 그의 음악과 삶의 흔적을 담다.

선생이 생전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남긴 유품 148종 412점이 있으며, 독일 정부로 받은 훈장과 괴테 메달을 비롯해 사무집기, 생전 연주하던 첼로, 항상 품고 다녔던 소형태극기와 사진 500여 점이 전시되어있다. 그의 뜨거운 삶을 담은 전시관을 느린 걸음으로 둘러본다.





주요 경유 명소

## 통영과 거제, 자연이 만든 천혜의 비경



[통영]  
미륵산에서 본 통영항 해무  
(한려수도케이블카 이용)



[거제]  
해금강 십자동굴



[거제]  
외도 보타니아 환상의 섬

# 교육참가 신청서 (이메일 접수용\_예술편)

## ◆ 신청담당자 정보

성명 :	회사명 :	직위 :
직장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 ◆ 교육참가자 정보

성명 :	회사명 :	직위 :
직장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여행자보험가입 용도) :

성명 :	회사명 :	직위 :
직장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여행자보험가입 용도) :

성명 :	회사명 :	직위 :
직장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여행자보험가입 용도) :

본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용입니다. 작성 후 KMA 인재개발본부 [diseo@kma.or.kr](mailto:diseo@kma.or.kr) 로 송부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3274.9311 서동일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